

반도체생태계펀드 1,200억원 추가 조성 원전산업성장펀드 1,000억원 신설

- 제10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

- ① **(조기집행)** 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3.21일까지 총 75.8조원의 자금을 공급, 전년보다 13%(8.7조원) 빠르게 공급 중
- ② **(반도체펀드)** 금년부터 재정투입 펀드로 발전한 ‘반도체생태계펀드’는 금년 1,200억원 규모 신규조성하여 총 3,200억원*의 자금을 투자중심으로 공급
* (재정투입 펀드) 1,200억원 + (기존 민간중심펀드) 2,000억원 = 총 3,200억원
- ③ **(원전산업펀드)** 국내 원전생태계 강화 및 소형원자로 산업의 선제적 육성을 위해 원전산업에 특화한 1,000억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 신규조성

‘25년 3월 26일(수),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 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0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同 협의회는 정책금융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22년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하였다. 금번 협의체에서는 정부의 ‘25년 중점추진 과제 중 하나인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조기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반도체 소부장 및 원전 등 개별산업을 위한 재정투입 펀드의 구체적 운용방안을 발표하였다.

【 제10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25. 3. 26.(수) 15:00, 마포 프론트원 컨퍼런스룸
- 참석기관 : 금융위(김소영 부위원장), 과기정통부, 산업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특허청, 방사청 실국장,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부기관장 및 수출입은행 부행장 등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어느새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10회차를 맞이하였다”면서 “그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부처·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정책금융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반도체생태계펀드의 선제적 출시(제3회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인공지능분야 프로그램 마련(제7회), 정책펀드의 효과성 분석(제6회, 제8회) 등 정책금융이 맞이한 현안을 선제 대응하고, 정책금융 공급의 질적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각 부처가 제시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정책 금융의 질적인 개선을 이뤄나가겠다”고 하였다.

[조기집행 추진경과 : 총 75.8조원 자금공급(전년 동기比 +8.7조원)]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과제로서 정책금융의 조기 집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소속 4개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과 수출입은행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주말인 3월 21일까지 총 75.8조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전년보다 8.7조원(+13.0%) 많은 자금을 공급하였다. 특히 3.17일부터 한주간에만 13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재무제표가 점차 확정되면서 자금집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금조기집행에 협조한 정책금융기관 및 현장직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하였다.

5개 정책금융기관은 4월말까지는 예년(‘23년 기준 109.3조원) 대비 +13조원 확대된 122조원 이상의 자금을 산업현장에 공급하고, 정책금융기관 연간 공급 계획의 60%를 상반기 내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반도체생태계 펀드 운용방안]

올해부터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 및 소부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생태계펀드’가 1.1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반도체생태계펀드는 제3차 정책금융 지원협의회(‘23.6월)에서 발표되어 3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 및 운영되어 왔다. 이를 선례로 ‘24.6월 관계부처 합동의 ‘반도체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에 의해 재정이 투입된 펀드로 발전하였으며 규모도 기존 3,000억원에서 8,000억원 증액된 1.1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금번에는 작년말 국회에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위한 예산이 반영·확정됨에 따라 ‘25년분 1,200억원을 신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 반도체 생태계펀드 확대 조성 ☞ 노란음영이 금번 운용방안 발표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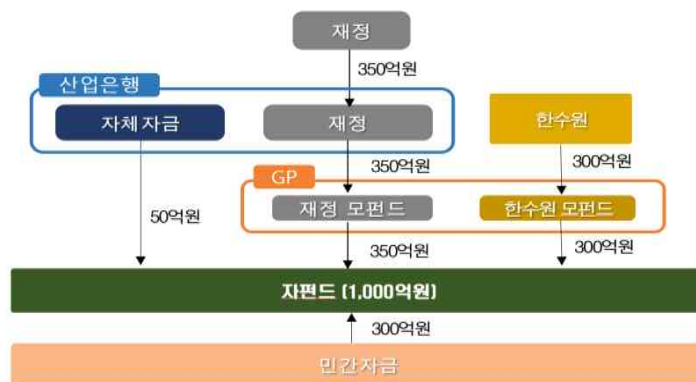
구분(억원)	정책 및 민간기업 출자자			민간자금 유치	합계	
	재정	공공자금 (산기은, 성장사다리펀드)	반도체기업			
기존	'23~'24년(투자중)	-	309	161	482	952
	'25년(조성예정)	-	441	589	1,018	2,048
소계		-	750	750	1,500	3,000
신규	'25년	300	(300→) 550	-	(600→) 350	1,200
	'26~'27년(案)	1,700	1,700	-	3,400	6,800
	소계	2,000	2,250	-	3,750	8,000
합계		2,000	3,000	750	5,250	11,000+@

금번 신규조성에는 특정분야를 위해 투자되는 섹터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당초 계획대비 기업은행에서 100억원, 성장사다리2펀드에서 100억원, 산업은행에서 50억원 등 총 250억원의 자금을 공공영역에서 추가로 출자(300억원→550억원)하여 빠른 펀드결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투자에 협조하여 주신 기업은행과 특허청 등에 감사”한다면서 “민간자금유치의 부담이 경감된만큼 신속하게 결성 및 투자하여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원전산업 성장펀드 운용방안]

올해에는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업하여 소형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등 원전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를 신설한다. 재정 350억원, 산업은행 50억원, 한국수력 원자력 300억원 등 총 700억원의 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 300억원 이상을 유치하여 총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원전생태계의 발전에 투자한다.

【 원전산업성장펀드 구조도 】



원전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주된 투자목적인 펀드로서 SMR관련 기업에 일정수준 이상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원전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한다. 김 부위원장은 “원전은 우리경제의 유망한 수출산업인만큼 재정과 산은, 한수원의 협업을 통해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인사말씀



담당 부서 <총괄>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김기태 (02-2100-2861)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책임자	팀 장	김덕구 (044-203-4232)
		담당자	사무관	권순범 (044-203-4231)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책임자	과 장	이규봉 (044-203-4270)
		담당자	사무관	전성철 (044-203-4274)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대일 (044-203-5320)
		담당자	사무관	황창호 (044-203-53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기반과	책임자	과 장	윤홍권 (044-202-6240)
		담당자	사무관	이주연 (044-202-624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세진 (044-201-1751)
		담당자	사무관	서주형 (044-201-1752)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책임자	과 장	윤태근 (044-201-6701)
		담당자	사무관	김지수 (044-201-6706)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조성우 (044-204-7520)
		담당자	사무관	신규호 (044-204-7524)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상천 (044-204-7700)
		담당자	사무관	이종욱 (044-204-7703)
	해양수산부 데이터전략팀	책임자	팀 장	이인자 (044-200-5215)
		담당자	사무관	백정호 (044-200-5218)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책임자	과 장	조광현 (042-481-5258)
		담당자	사무관	윤규선 (042-481-5309)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금융지원TF	책임자	서기관	송다래 (02-2079-6418)
		담당자	사무관	양승윤 (02-2079-6417)
	한국산업은행 영업투자기획부	책임자	부 장	김시학 (02-787-6901)
		담당자	팀 장	강준영 (02-787-6927)
	중소기업은행 여신기획부	책임자	부 장	이상민 (02-729-7711)
		담당자	팀 장	윤정훈 (02-729-6761)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책임자	부 장	정효태 (053-430-4331)
		담당자	수석부부장	허진수 (053-430-4650)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책임자	부 장	장진엽 (051-606-7460)
		담당자	부부장	홍진영 (051-606-7463)